

교회소식

1. 성경 일독을 목표로 '예수 중심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삶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번 주 목상 범위는 시편 41편부터 62편까지입니다.
2.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 바랍니다(청소년부실).
3. 인도자 성경공부가 오는 9월 3일(토) 오후 6시 줌(Zoom)으로 있습니다.
4.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 아동부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식사와 함께 있으며, 이어 오후 5시부터 청년부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6. 오는 9월 18일, 10월 2일 두 주일은 키위 교회에서 선약이 있어서 St Lukes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5월 첫 주일에 예배드린 파넬 커뮤니티 센터와 다른 곳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바뀌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7. 이태한 목사와 가족은 코로나 확진으로 화요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AUGUST

교회사역일지

- 8월 6일(토) 인도자 성경공부
- 8월 8일(월) 선교사 모임 (교단)
- 8월 28일(주일) 권사 기도회
- 8월 31일(수) 헌신 예배

예배시간안내

- 주일예배 1:00pm
- 청년예배 2:45pm
- 유아부 1:00pm
- 아동부 1:00pm
- 청소년부 1:00pm
- 수요예배 7:30pm

예배봉사자

- 예배안내 심경순
- 새신자안내 차영철, 심경순
- 주차안내 민광호
- 주방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섬기는사람들

- 담임목사 이태한
- 부목사 이성훈
- 전도사 김양이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모든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M 021.968.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24권 33호 2022.08.21

주 일 예 배

오후 1시 인도: 이성훈 목사

찬	양	- - - - -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 - - - - 히브리서 11:6	- 인도자
❖ 찬	송	- - - - - 40장	-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 - - - -	- 다함께
❖ 신 앙 고 백		- - - -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 - - - 270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 - - -	- 장경희 집사
성 경 봉 독		- - - - - 창세기 4:1-15	-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 - - -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 - - - - 십자가로 돌아가라	- 이성훈 목사
찬	송	- - - - - 151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 - - -	- 인도자
교 회 소 식		- - - - -	-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 - - - -	- 다함께
❖ 응 답 송		- - - - - 411장 (1,3절)	- 다함께
❖ 축	도	- - - - -	- 이성훈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 8월 28일 - 현석호 장로 / 9월 4일 - 김병진 목사

금 주의 기도 제목

선교 기도

Prayer Together

1. 국회가 올바른 법 개정으로 미션 스쿨의 건학 이념이 잘 지켜지도록.
2. 한국 정부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독립 자주적인 외교를 실천하도록.
3. 북한 동포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복음 통일이 이뤄지도록.

공동 기도

1. 항상 기도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2.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도록.
3. 현실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이 이웃을 삼고 싶어 하는 성도가 되도록.
4. 한국이나 다른 외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 - - - -	수요 찬양단
기	도	- - - - -	김창조 집사
성 경 봉 독		- - - - - 마가복음 5:1-8	- 다같이
설	교	- - - - - 예수님의 능력 2	- 이태한 목사
찬	송	- - - - - 91장	- 다같이
합 심 기 도		- - - - -	- 다같이
주 기 도		- - - - -	- 다같이

*기도순서: 8월 31일 - 박소진 집사 / 9월 7일 - 박제란 권사